

국립목포대-전남도립대, 통·폐합 작업 본격 추진

통합추진위, 교육부에 신청서 제출
특성화 계획 총괄표·발전계획 담아
송하철 “지역 맞춤 교육·연구 구축”
장헌범 “전남 지역 성장·발전 선도”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의 통·폐합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립대학교는 국립목포대학교와 대학 통·폐합 신청서를 지난 27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두 대학은 앞서 지난 26일 장흥 통합의

학컨벤션센터에서 제5차 통합추진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고 통·폐합 신청서(안)를 심의한 후 원안 가결, 각 대학별 내부 심의 과정을 거쳤다.

두 대학은 지난 1월 대학통합합의서 체결 이후 7월 대학통합 추진 기본계획을 합의하고, 통합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쟁점 사항을 논의하며 통·폐합 신청서를 공동으로 작성했다.

신청서에는 △통·폐합 목적 및 특성화 계획을 담고 있는 총괄표 △대학별 발전 계획 △통·폐합 후 대학운영 체제 개편 계획 △교육 여건개선 △연차별 소요예산

△양 대학 통합 후 학생 및 교직원 보호 조치 계획 등이 담겼다.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은 “이번 통합은 단순히 두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전남 지역 고등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가 힘을 모아 지역의 주력산업과 인재 수요에 맞는 교육과 연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남 지역을 넘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심 대학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장헌범 전남도립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은 “통·폐합 신청서 제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이며, 이 과정에서 양 대학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교육부 심의 과정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며, 통합 대학이 전남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립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는 대학 통합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 기술·기능인력 수요에 대응하는 전주기인력양성 시스템 구축해 국내 최초로 2·4학제 통합 국립대로 발돋움하게 된다. 전남 최대의

국립대로서 지역 대학의 상생과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견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국립목포대의 도립, 목포, 남악, 영암, 나주 등 5개 캠퍼스와 전남도립대의 담양, 장흥 캠퍼스 등 총 7개의 캠퍼스를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캠퍼스 환경 구축과 학생 지원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문화예술과 창업의 중심대학으로 나아가게 된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민주 “헌법재판관 임명, 최 대행의 의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최 부총리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 지켜봐야 되겠다”며 “그 결정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시절 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 대행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 회복을 위해서는 윤석열의 내란 관련 부분을 엄벌하고 단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그 차원에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최 대행의 당연한 의무인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1월1일까지로 이를 남는 ‘내란 일반특검’에 대해서도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2·3 비상계엄에는) 국가 최고 권력기관 관련된 사람들이 다 연루돼 있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서만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최 대행은 반드시 내란 특검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걸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를 최 대행이 잘 알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농업박물관, 지역 해양문화·전통 재조명

‘바다, 삶, 도구’ 특별전 마련

전남농업박물관이 2025년 5월31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풍부한 해양 문화와 전통을 재조명하는 ‘바다, 삶, 도구’ 특별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어민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어부의 손끝에서 탄생한 지혜’, ‘바다와 바람의 조화’, ‘생명의 땅, 갯벌 이야기’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 유물은 주낙, 조새, 작살, 김 채취 도구 등 다양한 전통 어로 80여 점이다.

도구들은 지역 주민의 생계와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해양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어업 유산의 가치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 등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옥경 전남도농업박물관장은 “지역의 전통 어로 문화와 도구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다”며 “이러한 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전남도, 내년 남도학숙 입사생 725명 모집

광주시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남도학숙의 내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내년 1월 2일부터 16일까지 신규 입사생 725명을 선발한다.

시·도별 선발 인원은 광주 362명, 전남 361명이다. 장애인 2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숙별로는 제1남도학숙 동작관(동작구 소재) 423명, 제2남도학숙 은평관(은평구 소재) 302명이며,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12월30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시 또는 전남도이고, 서울·인천·경기지역 내내 신입생이나 재(복)학 중인 학(원)생이다. 신입생은 대학명이 표기된 수험표, 합격증명서, 등

록금 영수증 중 1개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원서는 모집기간에 맞춰 남도학숙 입사 지원 누리집(https://ndhsdormitory.saramin.co.kr)을 통해 접수하거나, 보호자 주민등록지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 시·군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입사대상자와 예비자 순위는 내년 2월 4일 남도학숙 누리집에서 발표하며,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자 순서대로 입사한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3월부터 입사비 10만원, 월 16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남도학숙(제1학숙 02-820-3217, 제2학숙 02-300-2812), 광주시 대학인재정책과(062-613-3691), 전남도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25)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김대중 정신 통해 국가 미래 해답 찾아야”

DJ탄생 100주년 기념 북콘서트
최진 ‘지혜 지배자 김대중’ 강연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난제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풀지 궁극했습니다. 이 책이 큰 해답을 주리라 믿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은 지난 2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하는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을 쓴 저자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사회·강연자로 나서 김 전 대통령의 삶과 정신 세계를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상을 조망했다.

행사에는 이병훈 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상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청년농업인 등 50명이 참석했다.

콘서트장 입구에서 책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을 받은 이들은 자리에 앉자마자 열독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심리학적 관점에서 김대중의 삶과 정신세계를 들여다보며 정치지도자와 CEO에게 주는 메시지 등을 담았다. 특히 윤석열·김건희 리스크와 명태균 리스크, 이재명 사법리스크, 트럼프 2기 등과 같은 난제를 어떻게 풀지 김대중의 삶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했다.



지난 28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혜의 지배자 김대중 북콘서트’에서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이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축사에 나선 이병훈 전 위원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김대중을 표방하며 아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게 더 많다”며 “최진 원장은 직접 김 전 대통령을 모셨던 본인 만큼, 이 책에는 그의 진솔한 정신과 의미가 잘 담겨있다. 탄핵정국으로 어려운 시기, 윤석열이라는 위기 가운데 김대중리더십을 잘 전수받겠다”고 말했다.

박상규 총회장은 “연말비상계엄이라는 개탄스러운 시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 가장 잘 어울리고 필요한 책”이라며 “정파를 초월해 중도적 입장에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 꼭 필요한 성공 전략과 비법을 제시했다고 생각된다”고 서평했다.

최진 원장은 “김대중의 과거를 보면,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해답이 명확하고도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예로 김대중은 트럼프 2기 대비를 위해 ‘일론 머스크’와 제일 먼저 접촉했을 것이다.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다. 향후 조기대선 등 격동의 대한민국에 이 책이 그 어떤 정치 리더십 서적보다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최 원장은 고려대 연구교수,청와대 정책비서실 선임국장,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위 실장, 세한대 부총장을 거쳐 현재 세한대 교수와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글·사진=정성현 기자

與 ‘권영세 비대위’ 출범... 첫 일정 무안 방문

“최대한 협력” 유가족 위로
임이자·최형두 등 비대위원

국민의힘은 30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의결하고 ‘권영세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한 지 2주 만이다. 당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면으로 권 비대위원장 임명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전국위원 787명 중 과반 이상인 5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486명이 찬성해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비상대책위원회는 3선 임이자 의원과 재선 최형두 의원, 비례대표 초선 최보운 의원, 초선 김용태 의원 등이 선임됐다.

당연직인 정책위의장은 4선 김상훈 의원의 유임이 결정됐다.

사무총장은 3선 이양수 의원이 맡았다. 전략기획부총장은 재선 조정훈 의원, 조직부총장은 초선 김재섭 의원이 임명됐

다. 수석대변인은 초선 신동욱 의원이 맡게 됐다. 법률자문위원장은 주진우 의원이 유임됐으며 비대위 비서실장직에는 강명구 의원이 선임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무안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179분 영령에 명복을 빈다”며 “희생된 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힘을 내시라. 저희도 돕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의 모든 관계자가 사고 수습과 희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뉴시스